



제 9 차 총회

2017 년 6 월 29 일-7 월 16 일

“여인이시여, 이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.”

사목적 모성의 예언적 선물

소식지 4 호

2017 년 7 월 16 일

기쁨과 감사

1. 종결을 지으며

7 월 12 일부터 16 일까지 우리가 힘쓴 이 종결부의 시작 때부터 데레사 시미오나토 수녀는 전 세계 5 대륙에 흩어져 있는 모든 수녀들이 은총의 열매를 맺도록,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밭에 뿌리신 풍부한 씨앗을 거두어들이 것을 요청했습니다. 이 기간에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숙고하고, 그룹에서 나누고, 그룹에서 숙고한 것을 전체모임에서 대조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전개되었습니다.

식별과 형제적 대화는 우리의 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. 이 걸음은 우리의 일상의 흐름 안에서 때때로 더 도전적이고 무거우며 어떤 것은 더 부드럽고 약하기도 한 다양한 리듬을 가졌습니다.

우리가 최종적으로 종합한 목표와 우선적 선택, 그리고 활동방향지침은 기도와 나눔, 여러 방면에서 온 제안들, 즉 작업 도구, 지역구로부터의 제안들, 수도회의 상황에 대한 보고들, 전문가들의 의견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.

전체 모임에서는 각 식별 그룹으로부터 만들어진 비전들은 안나리따 치벨로네 수녀와 미리나 이바라 가노자 수녀로 이루어진 편집 그룹에 맡겨 2017 년부터 2023 년까지 6 년을 위한 목표의 초안을 만들도록 위임했습니다.

첫 번째 초안을 만든 후, 우리는 다시 추가 설명을 위해 모였고, 그런 다음 다시 한 번 만장일치로 목표를 정할 때까지 정교하게 다듬도록 맡겼고,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:

성령으로부터 받아들이고, 마리아처럼
관계의 친교 안에서, 새로운 선교의 힘으로,
고통 받는 인류를 만나며,
생명을 낳고 수호하는 사목적 모성의 예언을 살아갑니다.

이어서 수도회의 네 바퀴에 따른 우선적 선택과 활동지침을 구체화 했습니다. 방향지침은 모든 빠스토렐레들과 친교 안에서 견도록 우리를 돕는 목적을 가집니다.

2. 미래를 전망하며

마지막 날 아침에는 우리가 받고 성숙시킨 것들을 모든 빠스토렐레들에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숙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. 총회 이후 활동을 위한 기준들을 채택하는 아우트라인을 그렸습니다. 이 모든 것을 마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에 대해 찬미 드리기를 위해 총회를 평가했습니다.

연중 제 15 주일 오후에는 성바오로수도회 총장이신 발디르 카스트로 신부의 주례로, 사도의 모후 지하성당에서 제 9 차 총회 폐막 미사를 드렸습니다.

이 기간 동안 기도로 우리를 동반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특히 제 9 차 총회가 참여와 친교의 분위기 안에서 진행되도록 이끌어 준 데레사 수녀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.

새로운 여인이며, 말씀을 잉태하도록 자신을 내어 주신 마리아여,
우리들이 교회가 앞서간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빌으소서.
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다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찬미의 노래를 올립니다:

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
(..)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며
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(루카 1,47.49)

총회비서
안젤라 나폴리 수녀